

담임목사 | 안영수 교육목사 | 임현철 시무장로 | 최광희 양재선 김유자 심현태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www.firstpresfortwayne.org

2025년 2월 16일 오전 11시

인도 | 안영수 목사 반주 I 안병국 청년

나아옴 [Approach]

전 주 [The Prelude] 반 주 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Jesus, We Enthrone You) ---- 다 같 이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교독문**7** (시편 13편) —

_ 인 도 자

인도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One: How long, O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다같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All: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인도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One: How long I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s and every day have sorrow in my heart?

다같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All: How long will my enemy triumph over me?

인도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One: Look on me and answer, O Lord my God. Give light to my eyes

다같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All: or I will sleep in death;

인도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One: my enemy will say, " I have overcome him,"

다같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All: and my foes will rejoice when I fall.

인도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One: But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다같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All: My heart rejoices in your salvation.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All): I will sing to the Lord, for he has been good to me.

사도신경 [Affirmation of Faith]

다 같 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 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참회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 같 이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죄악에 빠져있었고,

우리의 입에는 찬송 대신 원망의 말이 담겨있었으며,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서있기보다, 세상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인 도 자

다 같 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I will sing unto the Lord As long as I liv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while I have life in me My meditation of Him shall be sweet, I will be glad, I will be glad in the Lord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x2)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Bless thou the Lord O my soul Praise ye the Lord (x2)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다 같 이

중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안영수 목사

말 씀 [The Word]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20:8-16 —

박영일 집사

설교 [The Sermon] ————	"넘버 원(Number1)에서 온리 원(Only (One)으로" ———	안영수	목사
	ory] 당 여기에 모인 우리 (Gathered here, wit		박재희	집사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_ 인 _	로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안영수	목사
	ostlude] 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O, Lord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회	_	-안영수 :1	목사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Mathew 20:8-16)

8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9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12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13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16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8 When evening came,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manager, 'Call the laborers and give them their pay, beginning with the last and then going to the first.' 9 When those hired about five o'clock came, each of them received the usual daily wage. 10 Now when the first came, they thought they would receive more; but each of them also received the usual daily wage. 11 And when they received it, they grumbled against the landowner, 12 saying, 'These last worked only one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have borne the burden of the day and the scorching heat.' 13 But he replied to one of them, 'Friend, I am doing you no wrong; did you not agree with me for the usual daily wage? 14 Take what belongs to you and go; I choose to give to this last the same as I give to you. 15 Am I not allowed to do what I choose with what belongs to me? Or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16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 예배를 통해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 ◇ 오늘은 푸드 도네이션 주일입니다. 이 음식은 포트웨인 다운타운 지역의 3곳의 푸드뱅크로 보내집니다.
- ◇ 오늘 예배 후 친교실로 이동하여 점심 친교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초대되었으니 참석하여 주세요.
- ◇ 오늘 예배 후, 지난 4년간 미국 회중의 성가대 지휘·반주로 수고한, Brent의 송별회가 맥케이 홀에서 있습니다. 점심친교 시간 중 맥케이 홀에 자유롭게 들리셔서 Brent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 3.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 ◇ 3월 5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 저녁 7시, 교회 채플실에서 재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 ◇ 이번 사순절 기간(3/5-4/17), '매주 토요일' 아침 8시-9시까지, 교회 채플실에서 토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로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 2월 강단 꽃 봉헌: 2/16일 안영수 목사님, 신성임 사모님 (안영수 목사님 모친 추모)
- ◇ 3월에 강단 꽃 봉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알려주세요. 강단 꽃 장식 비용은 50불입니다. 헌금 시간에 이름과 함께 메모 란에 "Chapel Flowers"라고 적어주시고 헌금과 함께 드리면 됩니다.
- 4. 아래의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 ◇ **2월 당회:** 2월 18일 (화) 저녁 6시 30분
- ♦ 애뉴얼 미팅 및 연합예배 : 3월 2일 (주일)
- ◇ 부흥회: 일시-5월 16일(금)-18일(주일), 강사- 김기동 목사 (고구마 전도왕), 주제- 한 영혼을 소중히 이웃들에게 부흥회를 소개해주셔서, 포트웨인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해주세요.

2,3월 예배 봉사자					
날짜	기도	성경봉독	촛불점화		
2/23	심현태	김신화	박남세, 박재희		
3/2	한미 연합 예배, 애뉴얼 미팅 (공동 의회)				
3/9	윤웅철	소민호	앤, 강문정		
3/16	임진아	브리트니	앤, 강문정		